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0, Vol. 39, No. 2, 283-305

<http://dx.doi.org/10.22257/kjp.2020.6.39.2.283>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사회적 거절의 조절효과*

이 세 라)¹⁾ 신 현 균[†] 문 찬 기²⁾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가 사회적 거절 처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5차례의 사전 연구를 거쳐 '영상을 통한 첫인상 효과 연구'라는 실험 상황을 사회적 거절과 이에 대비되는 사회적 비거절 처치로 조작하였다.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 152명은 사전 설문(자기애적 취약성) 작성 이후 무선적으로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 조건에 각각 76명씩 할당되었고, 각 조건의 모든 참가자들은 영상을 촬영한 후 가상의 평가단으로부터 사회적 거절과 비거절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분석 결과, 가설대로 사회적 거절 처치 조건에서만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거절 실험 패러다임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절 실험 절차를 마련한 후, 이 실험을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특징적일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절 주체들의 사회적/경제적 수준, 서열 등을 고려하여 실험에 반영한다면 자기애적 취약성을 포함한 병리적 자기애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이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자기애적 취약성, 우울, 사회적 거절, 조절효과

* 본 논문은 이세라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E-mail: shawbian1107@gmail.com

2) Leeds Beckett University 심리학과 교수, E-mail: C.Moon@leedsbeckett.ac.uk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shk2004@chonnam.ac.kr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pathological narcissism)의 주요 하위 특성 중 하나인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절 여부가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거절 상황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질문지를 사용한 상관연구였다. 또한 관련된 소수의 실험 연구들은 이들의 취약성을 자극하는 데 다소 불충분한 처치를 사용했던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예비 연구를 거쳐 새로운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해 사회적 거절을 처치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병리적 자기애

현대 사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주체적 개인은 자신만의 가치와 고유한 독특성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으며 성장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폭발적인 발달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전시(展示)하는 일상을 낳았다. 이는 개인들이 제약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확장된 교류 상황에서 이 '주체적 개인'들은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확인받고자 한다. 자신만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양상은 병리적 자기애(narcissism)와 맞닿아 있다(Dewall, Pond, Campbell, & Twenge, 2011).

병리적 자기애(pathological narcissism)는 원할

한 자기 및 정서조절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기애(normal narcissism)와 대비된다(Bettencourt, Talley, Benjamin, & Valentine, 20016). 또한 특권의식, 착취적 행동, 공감 결여 등 반사회적 양상과 무력감, 공허감, 수치심 등 신경증적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개념이기도 하다(Campbell & Foster, 2007; McCullough, Emmons, Kilpatrick, & Mooney, 2003). 복합적 개념인 병리적 자기애는 오랫동안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분류되었다(Akhattr & Thomson, 1982; Pincus et al., 2009).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중심적이고 웅대한 자기 환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표현되는 부분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외현적 자기애는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진단 준거에 상당히 부합한다. 즉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적인 태도 및 행동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 자신을 향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나타낸다(Gang & Chung, 2002). 외현적 자기애가 웅대성을 외현적으로 드러내며 오만하고 과시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 웅대성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해 보이며 모호한 우울감에 시달린다(Park, Shin, & Lee, 2005).

병리적 자기애를 다룬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은 웅대성이 강한 자기애자들은 외현적 자기애로, 취약성이 강한 자기애자들은 내현적 자기애로 구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Cho &

Gwak, 2012; Hwang & Cho, 2016; Kim & Seo, 2013; Park, Shin, & Lee, 2007; Pincus & Lukowitsky, 2010; Rathvon & Holmstorm, 1996;). 이러한 분류와 접근은 병리적 자기애의 다양한 양상들을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이 내부와 외부 중 어느 쪽으로 표현되는지에만 집중되어 병리적 속성에 대해 간과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Pincus와 동료들(2009)은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 속성인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과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기애적 표현형(narcissistic phenotype)을 제안하였다. 자기애적 표현형은, 외부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타당화 하는 병리적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개인 내에 두 가지 표현형이 공존하지만 개인마다 특정 표현형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된다(Pincus & Roche, 2003). 웅대성은 자신의 성공과 타인으로부터 찬탄 받는 것에 대한 환상에 몰두하며 이를 위해 상대를 기꺼이 착취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상관성이 높다. 반면 취약성은 외부로부터 찬탄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존감 조절에 곤란을 겪고,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 자신을 찬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철회하며, 그들에게 인정을 요구한 것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관련 된다(Hwang & Cho, 2015; Pincus et al., 2009).

병리적 자기애의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병리적 자기애의 복합성에 따라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도 다양한데, 최근 병리적 자기애를 현대 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로 꼽히는 우울과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

나는 추세이다(Akhtar & Thomson, 1982; Gang & Chung, 2002; Han & Kwon, 2010; Hendin & Cheek, 1997; Lee & Jang, 2011; Watson, Sawire, Greene, & Arrendondo, 2002; Yang & Kwon, 2016). 그 중에서도 자기애적 취약성, 그리고 이와 동일선 상에 있는 개념인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다(Akhtar & Thomson, 2000; Kwon & Han, 2000; Lee, Seo, & Lee, 2007; Lee & Jang, 2011; Rhodewalt & Morf, 1998; Robbins & Dupont, 1992;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 Yang & Kwon, 2016). 참고로 기존 연구들 중 자기애적 취약성과 내현적 자기애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아 참고 문헌으로 이를 언급할 때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표현 양식이 아니라 병리적 속성에 초점을 두어 Pincus와 동료들(2009)의 제안에 따라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병리적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면모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대인관계이다. 병리적 자기애가 강할수록 자신을 향한 타인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승인과 찬탄을 요구한다(Pincus et al., 2009).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대만큼의 승인과 찬탄을 얻기 어려워 그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기 쉽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경우, 이상적인 자기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칭찬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기애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대인 관계에서 철수되거나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Cain, Pincus, & Ansell, 2008; Yang & Kwon, 2016). 구체적으로, 국외 임상 장면 연구들은 자기애적 취약성 또는 내현적 자기애가 강할수록 집단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

력하며, 이에 따라 쉽게 위축되거나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Akhtar & Thomson, 1982; Watson et al., 2002)).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에 비해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고 발표한 연구들이 있다(Gang & Chung, 2002; Lee, Seo, & Lee, 2007). 이 연구들은 이상과 실제의 불일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저드는 원인으로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외부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만 확립하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꼽는다. 따라서 타인의 승인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즉 사회적 거절(social rejection) 상황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소지가 많다(Twenge & Campbell, 2013).

사회적 거절의 조절

타인이 자신을 집단이나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로 규정되는 사회적 거절(Leary, 2010)은 그 자체로 병리적 자기애자들에게 강력한 위협 상황이 된다(Bushman & Baumeister, 1998). 자신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잘난 척을 하거나 거만하게 구는 모습은 잘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웅대한 자기상과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Kwon & Han, 2000).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자들은, 얼핏 겸손해 보이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자신의 높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평가나 거절에 심리적 동요를 겪으면서도 그를 표출했을 때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 동요를 억제

한다(Lee, Seo, & Lee, 2007). 그리고 이 심리적 동요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못해 무시할 수 없을 때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Kim, Lee, & Kim, 2011)

앞서 소개한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관련 연구들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사회적 거절 상황에서 그 양상이 확연해질 것임을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측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절 조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 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자기애적 취약성을 포함한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웅대한 자기상이 손상되는 상황 조건으로 지적 과제(intellectual task) 또는 성취(achievement) 실패 조건을 실험적으로 처치하여 부적응적 양상을 살펴보았다(Baek & Hyun, 1998; Cho & Gwak, 2010; Rhodewalt & Morf, 1998). 타인의 관심, 존경, 칭찬을 갈구하는 병리적 자기애자들에게 성취 실패는 심각한 부적응적 상태를 유발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성취나 능력을 검증받는 경우보다 타인과 사회적/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부터 거절당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애적 취약성을 자극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거절을 설정하여 우울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인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가운데 자기애적 취약성이 자극되는 조건으로 사회적 거절을 실험으로 처치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한 가설은 다음과 같고, 그림 1에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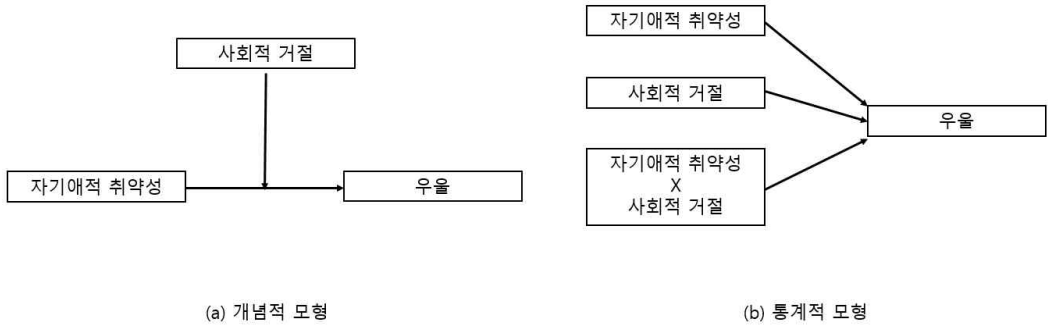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

가설 1.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이르는 과정이 사회적 거절 처치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 거절 처치 조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비거절 처치 조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사회적 거절 실험 패러다임 재구성의 필요성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거절 실험 연구들은 사회적 거절을 회상하도록 하거나(Choi & Yang, 2018; Somerville, Heatherton, & Kelly, 2006; Twenge & Campbell, 2003)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한 경우가 다수이다(Besser & Zeigler-Hill, 2010; Kim & Jeon, 2004; Eon, Kim, & Jeon, 2016). 회상 연구는 참가자들의 거절 경험이 질적으로 달라 동일한 처치로 보기 어렵고, 시나리오 연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거절 경험을 처치하여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이다(Lee, 2019).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사회적 거절을 처치한 연구들(Cho & Choi, 2007; Twenge & Campbell, 2013) 역시 성취와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혼재하여 사회적 거절을 성취 실패 또는 능력 불인정과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온라인 공놀이(cyber ball game)를 이용한 사회적 거절 관련 연구도 보고되었다(Eo & Lee, 2017; Kim, 2010). 이는 온라인 상에서 세 명이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며 한 명(실험 대상자)에게 공을 주지 않으므로써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게 하는 형식이다. 이 실험 패러다임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적합하나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인 일반 성인(대학생)들은 대인교류 상황에서의 거절로 인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거절과 대비되는 비거절 처치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상황에서 거절과 비거절을 처치하기 어렵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들은 연구자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 처치의 정확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절/비거절에 대한 새로운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였고, 각 실험의 처치가 실제로 사회적 거절과 비거

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 연구들이 거절 처치를 우선 정하고 강도를 조절해 비거절 처치를 확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랐다(Cho & Choi, 2007; Twenge & Campbell, 2003).

사회적 거절 실험 패러다임 구성 절차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사전 연구는 참가자들이 실험 상황을 사회적 거절로 인지할 때까지 내용이 5차례 수정 및 보완되었다. 사전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A 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과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게재한 모집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였다. 총 63명이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절차에 따라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해 실험의 목적과 자료의 처리, 연구 결과 보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에 고지된 경제적 보상(1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회적 거절 실험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주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참조해 참가자들에게 특정 주제(예: 공공장소 흡연, 과학연구에서의 동물실험 등)에 대한 글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익명의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것으로 거절을 조작하였다. 그렇지만 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글쓰기 능력 평가로 인식하거나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인상(impression)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회적 거절로 인식될 수 있다는 Seo(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인상을 평가 받는 상황을 사회적 거절 실험 패

러다임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대일 교류보다는 일대 다수의 교류 상황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사회적 거절이라는 연구(Twenge & Campbell, 2003)에 기반하여 실험 참가자들이 익명의 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상 평가를 받도록 설정하였다.

사회적 거절 처치 평가지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7명에게 실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연구들을 참조해 임의적으로 만든 평가지들 제시하여 사회적 거절을 느낄 정도로 평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평정단의 평정 내용을 바탕으로 세 장의 평가지를 만들었다. 이때, 극단적인 평가 결과가 제시될 경우 개인차와 관계없이 압도적인 상황 요인에 따라 모두 비슷한 수준의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 평정 내용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회적 거절 평가지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실험 참가자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본 익명의 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평가지 내용을 조작하였다. 우선 상단에는 대비되는 형용사 쌍(예: 지적이다 - 지적이지 않다, 깊이 생각한다 -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 7개 제시되어 있고, 중단에는 호감도를 평가하는 문항 4개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1점에서 9점 사이에 평정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세 장의 평가지에는 이 부분의 점수가 4점~8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조별 과제(협동 과업)를 함께 할지 묻는 문항에 두 장은 ‘아니오’, 한 장은 ‘고민해보겠다’가 표시되어 있다.

사회적 거절 처치가 결정된 직후 이에 대비되는 비거절 경험 처치를 조작하고자 위와

동일한 평정단을 대상으로 같은 과정을 거쳐 비거절 처치에 해당하는 세 장의 평가지를 만들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평가지 상단의 형용사 쌍의 점수는 1점~5점, 중단의 호감도 점수는 2점~4점 사이에 퍼져있으며, 마지막 하단의 조별 과제(협동과업)를 함께 할지 묻는 문항에는 세 장 모두 '네'가 표기되어 있다.

앞서 결정된 내용들이 실제로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영상을 통한 대학생의 첫인상 효과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사회적 거절 처치조건(12명, 남자 5명, 여자 7명, 평균 연령 20.44세)과 비거절 처치조건(11명, 남자 5명, 여자 6명, 평균 연령 19.68세)에 할당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자의 설명과 안내를 들은 후, 약 3~4분 동안 자신을 소개하고 제시된 글을 낭독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 촬영은 연구자의 스마트 폰으로 진행되었고, 촬영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실험실 밖으로 나간 다음 10분 뒤 실험실로 돌아가 첫인상 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사전에 준비해둔 거절 또는 비거절 평가지 세 장을 참가자에게 제공하였다.

사회적 거절 처치조건 참가자들은, 세 장의 평가를 확인한 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긴 했지만 모두 당혹감, 불쾌함, 분노 등을 보고 하였다. 또한 참가자 12명 중 75%에 해당하는 9명이 실험 상황을 사회적 거절이라고 인식하였다. 3명(25%)은 불쾌하긴 하지만 거절까지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거절 처치조건 참가자들의 경우, 평가를 확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원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나타

냈다. 또한 참가자 11명 중 9명(82%)은 실험 상황이 사회적 수용이라고 평가하였으며, 2명(11%)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실험 조건에 따른 개인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치조건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면 개인차가 희석되어 단지 처치조건에 따른 결과 차이만 확인하기 쉽다(Orne, 2017). 이와 더불어, 완벽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는 오히려 비현실적이어서 참가자가 실험 의도를 의심하게 하거나 실험 상황을 믿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실험 종료 후, 양쪽의 처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인상 평가 결과의 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결과지들의 평가 점수 분포가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사회적 거절/비거절 실험 패러다임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사회적 거절/비거절 평가지의 예시는 부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절/비거절 실험 패러다임 확정을 위한 사전 연구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절차는 A대학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IRB No. 1040198-184014-HR-024-02).

실험 참가자

본 실험의 전체 참가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구체적으로, A대학 내 심리학과 Research Patient Pool(RPPool)과 연구자의 개별적인 연구 공고를 통해 각각 117명, 40명이 참가신청을 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사전에 공지된 대로 연구 참여 점수 또는 현금을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받았다.

위 방법에 따라 참가 신청을 한 참가자들은

표 1. 실험 참가자들의 성비와 평균 연령 및 표준 편차

집단 구분	남성 (%)	여성 (%)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사회적 거절집단	27 (35.5)	49 (64.5)	20.55	2.18
사회적 비거절 집단	22 (28.9)	54 (71.1)	20.66	1.98

161명이었지만 실험 관련 설명과 안내를 들은 후 4명이 영상 촬영에 부담을 표하며 참가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15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고, 중도에 포기한 참가자는 없었다. 모든 실험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157명의 참가자들은 실험 일정 순서에 따라 무선적으로 사회적 거절 조건(78명)과 사회적 비거절 조건(79명)에 배정되었다. 무선할당은 요일 별로 거절 평가지와 비거절 평가지 제시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회적 거절 평가를 첫 번째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화요일에는 사회적 비거절 평가를 첫 번째 참가자에게 배정하였다. 실험은 34일 동안 진행되었고, 요일 별 참가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이었다. 이 중, 사전에 실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참가한 남성 2명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남성 3명의 자료는 최종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각 처치 조건 별 참가자들의 성비와 평균 연령 및 표준 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두 조건 간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753, p = .386, t(150) = -.136, p = .892$, 이로써 두 조건의 참가자들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정 도구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 등이 개발하고, Yang과 Kwon(200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사용하였다. PNI는 병리적 자기에의 표현형인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에 맞추어 자기애적 취약성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수반적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CSE) 10문항, 평가절하(devaluating, DEV) 5문항, 특권분노(entitlement rage, ER) 5문항, 총 20문항으로 측정된다.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하게 된다(CSE)’,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DEV)’, ‘나는 비판받을 때 화가 난다(ER)’ 등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반응에 따른 자존감 굴곡, 수치심, 분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척도가 0점에서부터 시작하는 7점 척도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1점을 최저점으로 하여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고(1점: 전혀 나와 같지 않다 ~ 7점: 전적으로 나와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하다고 해석된다. Pincus 등(2009)의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 별로 .78~.93 이었고, Yang이 확인한 내적 합치도는 .85~.92사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78~.91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개의 하위 요인을 합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우울 척도

실험 상황에서의 우울을 측정하고자 Zukerman과 Lubin(1965)이 제작하고 Kim(1987)이 번안하여 사용한 다차원적 정서 형용사 척도(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 MAACL)중 우울에 해당하는 형용사 묶음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11개의 우울형용사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9점 척도 상(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8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였다(사용된 형용사: 거절당한 듯한, 고독한, 고동스러운, 무너져버린, 괴로운, 비참한, 슬픈, 실망한, 외로운, 의기소침한, 절망적인). 한편, 사회적 거절을 처치 받는 참가자들에게 우울한 형용사만 제시하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후 기분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실험 의도로 곧바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비거절 처치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우울한 형용사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MAACL의 긍정 형용사 11개를 포함하였다(사용된 형용사: 힘이 솟는, 모험적인, 상쾌한, 즐거운, 안심한, 자유로운, 재미있는, 평온한, 행복한, 활기찬, 희망찬). 한편, 참가자들이 실험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 6문항도 filler로 활용하였으며, filler인 긍정 형용사, 대학생활 스트레스 측정치는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우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34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실험적 처치에 따라 우울을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우울은 특질로서의 우울이 아니라 상태 우울감을 의미한다.

1) 본 연구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참조한 논문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지세하여 그에 맞추어 표기하였다.

실험 절차

연구자는 모든 참가자와 개별 연락을 통해 실험 참가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연구자는 한 공간이 칸막이로 분리된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를 안쪽 공간으로 안내하고, 참가자의 45도 옆에 앉아 준비한 PPT와 함께 연구 진행과정을 설명한 다음, 참가자에게 실험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3분의 시간을 주었다. 연구자가 PPT를 이용해 설명한 실험 내용은 표 2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실험의 상세 내용과 절차에 등장하는 '심리학과 장기 프로젝트와 79명의 프로젝트 참가자들', '세 명의 평가단은 실체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거절과 비거절을 처치하기 위해 사전 연구를 통하여 준비한 가상적 사항들이며, 실제 실험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절 / 비거절의 처치

실험 설명 및 안내 절차는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연구자의 안내와 설명을 들은 참가자는 참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사전 설문(자기애적 취약성)에 응한 후, 자기소개와 글 낭독 영상 촬영을 위해 5분 동안 준비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자기소개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름, 나이, 학과 등과 같은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취미나 관심사 등과 같은 내용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낭독할 글을 눈으로 끝까지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실제 낭독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다. 준비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영상이 촬영되는 동안 영상 상단에 시간이 표시되므로 시간을 확인하여 자기소개와 글 낭독 촬영

표 2. 실험 내용 및 안내 사항

(1) 연구 참가 공고문대로 '영상을 통한 대학생의 첫인상 효과' 연구라고 실험 소개
(2) PPT를 이용해 연구의 전체 절차를 보여주며 실험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움
(3) 연구 목적을 직접 만남과 달리 동영상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낯선 사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첫 인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
(4) 낯선 사람의 영상을 보고 첫인상을 평가 하는 세 명(이하 평가단)과 영상을 촬영하고 평가를 받는 한 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고 안내
(5) 참가자는 평가를 받는 조건에 배정되어 주관적인 인상 평가를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1분~2분)와 객관적인 인상평가 차원의 글 낭독(1분~1분 10초) 영상을 한꺼번에 이어 촬영하게 됨을 알림
(6) 촬영 종료 후, 연구자는 다른 실험실에 대기 중인 평가단에게 영상을 가져가 보여주고 평가단이 평가를 완료하면 바로 참가자에게 알려준다고 설명함. 이때, 참가자의 첫인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연구자가 참가자 본인에게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 참가자가 평가결과 확인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함
(7) 다른 실험실에 대기 중인 평가단은 약 6개월 전부터 진행된 심리학과 내 장기 프로젝트의 참여자들 중 일부이고, 일련의 일정 조정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과 첫인상 평가단 활동을 동시에 한다고 설명
(8) 평가단이 영상을 보기 전 영상의 썸네일(thumbnail)로 참가자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친분이 있는 경우 손을 들면 그 평가자는 첫인상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첫인상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줌
(9) 평가단이 영상을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은 사전에 비밀 보장 서약서 작성을 통해 발설이 금지되도록 조치하였음을 고지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 받은 뒤 휴대폰 사용 금지와 안내 사항(실험 종료 즉시 영상 완전 삭제, 모든 자료의 익명 처리) 등을 설명

영 시간이 최대 3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알려주었다. 참가자가 준비 완료를 알리면 연구자는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뒤편으로 가 대기하였다. 그리고 참가자가 자기소개에 이어 글 낭독까지 끝내면 참가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 완료 버튼을 눌러 촬영을 종료하였다.

연구자는 동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참가자에게 연구자가 다른 실험실에 있는 평가단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첫인상 평가를 받아오는 약 10분 동안 준비된 지정 도서(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Oliver Sacks)를 읽으며 대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영상이 촬영된 스마트 폰을 들고 실험실 밖으

로 빠져나갔다. 약 10분 뒤,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했지만 참가자에게는 평가단에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 장의 평가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때, 평가단의 평가는 다른 실험실의 장기 프로젝트 연구자가 수거하여 봉투에 담아 연구자에게 주어 연구자도 평가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다 솔직한 반응을 얻기 위한 설정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처치 조건에 무선할당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절 평가지와 비거절 평가지를 무선적으로 받아 연구자가 칸막이 뒤편에서 대기하는 동안 혼자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결과 확인을 마치면 평가자들을 다시

봉투에 담아 연구자에게 돌려주었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첫인상 효과 연구과 병행되고 있는 대학생할 스트레스 관련 심리학과 연구라고 소개하며 사후 설문지(대학생활 스트레스, 우울, 긍정)를 봉투에 담아 제시하였다. 이 절차는 참가자들이 실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들은 설문 작성을 끝내면 봉투에 설문지들을 집어넣은 다음 칸막이 뒤편에서 대기 중인 연구자에게 알렸다. 이렇게 모든 실험을 마친 후,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실험에 참가한 소감과 본인이 추정하는 실험의 목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 두 명은 실험 의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절 조건의 참가자들 중 30%에 해당하는 22명이 일부러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의심을 표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비거절 처치 조건의 경우, 실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참가자는 없었다. 한편, 디브리핑(debriefing) 후, 실험 내용 비밀보장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참가방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뒤 실험을 종료하였다. 그림 2를 통해 실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PROCESS macro 3.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함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를 사회적 거절 처치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과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따로따로 실시해야 하는 기존의 방법을 통합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예측변인(자기애적 취약성), 조절변인(사회적 거절 처치),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자기애적 취약성 x 사회적 거절 처치)이 투입된 회귀분석과 이의 유의도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Hayes(2017)는 최신 버전의 PROCESS macro에서 92개의 모델을 통해 손쉽게 매개효과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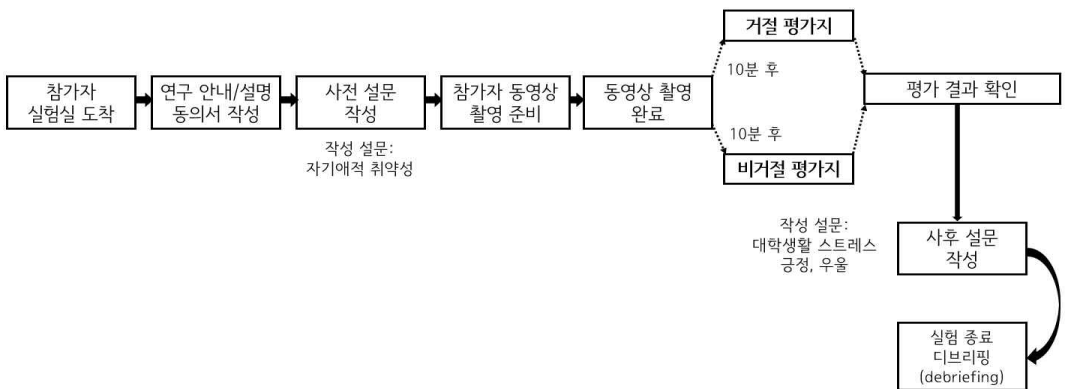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거절 / 비거절 실험 절차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²⁾, 본 연구의 경우 가설에 맞추어 model 1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실험 처치 후 조건 별(사회적 거절 처치 vs. 사회적 비거절 처치) 상관, 평균 표준 편차 및 점수 범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거절을 처치 받은 경우,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454$, $p < .01$. 그리고 비거절 처치를 받은 조건에서도 상관계수가 거절 처치 조건에 비해 작긴 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80$, $p = .014$.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절의 조절효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간 관계를 사회적 거절이 조절하는지 알아보려고 SPSS PROCESS macro 3.1(Hayes, 2017)의 model 1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적 거절은 모두 각각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표 3. 각 처치조건 별 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 편차 및 점수 범위³⁾

변인		1	2
1. 자기애적 취약성			.454**
2. 우울		.280*	
사회적 거절 처치	평균	64.631	21.882
	표준 편차	21.602	18.769
	점수 범위	25~130	0~82
사회적 비거절 처치	평균	61.279	5.241
	표준 편차	18.617	7.517
	점수 범위	24~126	0~38

주. 사회적 거절 조건 $N = 76$, 사회적 비거절 조건 $N = 76$, ** $p < .01$, * $p < .05$. 대각선을 중심으로 상단은 사회적 거절 조건의 변인 간 상관, 하단은 사회적 비거절 조건의 변인 간 상관.

지 않았다, $b = .119$, $t = 1.404$, ns ; $b = -.2420$, $t = -.359$, ns . 그러나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적 거절의 상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75$, $t = 2.511$, $p = .013$.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거절 처치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그림 3 참조).

표 5는 사회적 거절 처치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정 결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절 처치 수준에 따른 우울에 대한 자기애적 취약성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거절 처치 조건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만, $b = .395$, $SE = .069$, $CI_{95\%} [.258, .532]$ 비거절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b = .119$, $SE = .085$, $CI_{95\%} [-.049, .287]$. 이로써 가설 1-1과 가설 1-2가 지지되었고, 종합하면 사회적 거절 처치 조건에

2) 연구자의 연구 가설에 맞는 모델 번호(model number)를 찾아 PROCESS macro 상에서 클릭하면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다.

3) 무선헌당에도 불구하고 거절 조건과 비거절 조건의 자기애적 취약성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t(150) = -3.325$, $p = .001$.

표 4.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준거 변인	예측변인	<i>b</i>	<i>SE</i>	<i>t</i>	<i>p</i>	95% 신뢰구간(CI)	
						LLCI	ULCI
우울	자기애적 취약성 (A)	.119	.085	1.404	.162	-.049	.287
	사회적 거절 (B)	-2.420	6.748	-.359	.720	-15.755	10.915
	(A) x (B)	.275	.110	2.511	.013	.059	.492

주. 각 조건 별 $N = 76$, $b =$ 비표준화계수, $SE =$ 표준 오차, $t =$ 검정 통계량,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사회적 거절 조건은 1, 비거절 조건은 0으로 더미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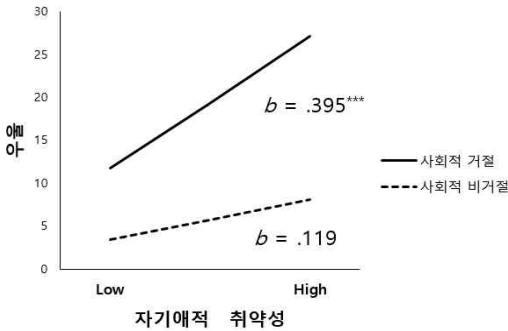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거절의 조절효과

서만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간 관계가 사회적 거절 처치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1 역시 지지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간 관계를 사회적 거절의 여부가 조절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우호적 평가와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절은 그들의 대표적인 부적응 반응인 우울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사회적 거절이 타인들에 의해 집단이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표 5. 사회적 거절 처치에 따른 조건부 효과

실험 처치	경로 : 자기애적 취약성 → 우울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CI)	
	<i>b</i>	<i>SE</i>	<i>t</i>	<i>p</i>	LLCI	ULCI
사회적 거절 처치	.395	.069	5.695	.000	.258	.532
사회적 비거절 처치	.119	.085	1.404	.162	-.049	.287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 구간 상한선. 부트스트래핑 횟수 = 10,000회.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01 수준에서 유의함.

행위로 규정된다는 점(Leary, 2010)에 근거하여 배제라는 실질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거절을 처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거절 실험 패러다임들이 처치의 임의성, 결과의 제한적 해석, 사회적 거절에 대비되는 처치의 부재 등의 한계점을 보여 이를 보완한 새로운 사회적 거절/비거절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는 총 5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 후 자발적으로 참가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전원 대학생)을 사회적 거절 처치조건과 비거절 처치조건에 무선적으로 각각 78명, 79명 할당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험 관련 정보 사전 습득, 불성실한 실험 참가태도 등의 이유로 5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각 처치 조건에 76명씩 무선할당된 총 1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 간 관계를 사회적 거절 처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적 거절 처치를 받은 경우에만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험 처치 두 조건 모두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우울의 상관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거절과 비거절 상황을 초월하여 우울에 취약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적 거절의 상호작용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비거절 상황보다는 거절 상황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우울을 보다 심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경향이 확연하고, 행동의 적절성, 상대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Atlas & Them, 2008; Gang & Chung, 2002; Han & Kwon, 2010; Hendin & Cheek, 1997; Yoo & Kim, 2019).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을 포함한 병리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타인이 비현실적으로 충족시켜주길 바란다는 점에서 볼 때(Ronningstam, Gunderson, & Lyons, 1995), 타인으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 거절 상황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조건이 된다. 물론 사회적 거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자기애적 취약성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길고 부정적응적이다.

위 내용들에 기반해 실시된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성격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저,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실험 조작을 통해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애적 취약성을 포함한 병리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찬탄만을 기대하므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취약한 환경일 수 있다(Lee, 2019). 그러나 자기애적 취약성의 부정적응적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는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처치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자기애적 취약성 관련 연구들 대부분 설문과 같은 자기보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적 취약성을 포함한 병리적 자기애의 성격적 결합

이 두드러지는 사회적 거절과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적 양상은 임상 장면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Watson et al.,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된 실험적 처치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절이라는 일상적 상황에서 우울이라는 부적응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경우,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평가나 거절에 쉽게 심리적 동요를 겪으면서도 상대의 부정적 반응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는 우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Kim, Lee, & Kim, 2011). 본 연구는 이 과정의 일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달리 말해,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기대하지 않은 상대의 반응, 즉 거절에 우울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의 우울을 다룰 때, 대인관계 시 상대에게 무조건적인 승인이나 칭찬을 갈망하는 양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와 경직된 생각을 수정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거절/비거절 처치는 여러 차례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검증한 실험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절을 중심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비거절 처치 또한 예비 실험을 통해 타당화를 거쳤다. 따라서 추후 사회적 거절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의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의 병리적 특성이 자극되는 조건으로 사회적 거절이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적 거절의 상호작용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편협적 사고가 두드러지고(Kim & Kim 2018), 자신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자기 자비 수준이 낮다는 점(Yoo & Kim, 2019)을 감안하여 이를 매개변수로 결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면 자기애적 취약성과 사회적 거절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기제를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병리적 자기애의 핵심 특성 중 자기애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병리적 자기애에는 취약성과 웅대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극되는 지점에 따라 부적응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웅대성의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으로는 분노와 공격성이 꼽힌다(Cho & Gwak, 2012; Tweng & Campbell, 2003). 이는 사회적 거절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웅대성 중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적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거절 조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웅대성의 부적응적 양상을 비교해본다면 병리적 자기애의 이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기애적 취약성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 또는 거절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집착하며 이로 인해 사회관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와 유사하다. 그러나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 비해 열등하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APA, 2013/2015),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 응대성을 억제한다는 면에서 다르다(Park, Shin, & Lee, 2005). 또한 회피성 성격장애는 극소수의 친구에게 매우 밀착되어 있고 의존적이나(APA, 2013/2015) 자기애적 취약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Pincus et al., 2009). 하지만 두 특성 모두 타인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절 조건에서 두 특성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보는다면 유사한 양상의 다른 성격장애의 변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절과 상관이 높은 불안, 사회불안, 적대성을 함께 살펴본다면 자기애적 취약성의 부적응적 양상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학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주요 판단 준거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병리적 자기애자들이 자신이 이상화한 가치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럽다는 것과 연결된다(Mackinnon, Miches & Buckley, 2006/2012).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신을 평가한 세 사람이 같은 학교 재학생이라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즉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 이외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절 또는 비거절을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문화적 변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추후 사회적 거절 주체들의 사회적/경제적 수준, 서열 등이 포함된다면 자기애적 취약성, 응대성을 포함하여 병리적 자기애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다각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선행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병리적 자기에 중 자기애적 취약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사회불안 역시 사회적 거절에 대해 과민하고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들을 쉽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Kim, Cho, & Lee, 2000; Hope, Burns, Hayes, Herbert, & Warner, 2007; Yoo & Kim, 2019)을 종합했을 때, 사회불안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거절 조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일반 대학생이었고 이에 따라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확연한 우울 양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사회적 거절 처치 조건의 참가자들의 평균 우울 수준이 21.882(점수 범위 10~82점, 표준편차 18.769)였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 자기애의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절에 따른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란 일종의 경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설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추후 대학생(일반 성인) 뿐 아니라 자기애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우울이 두드러지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임상적 유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khtar, S.,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Baek, S. H., & Hyun, M. H. (2008).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101-107.
- Besser, A., & Zeigler-Hill, V. (2010).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emotional and motivational responses to negative events: The roles of visibility and concern about humil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520-534.
- Bettencourt, B., Talley, A., Benjamin, A., & Valentine, J. (2016). Personality and aggressive behavior under provoking and neutral condi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2, 751-77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mpbell, W. K., Foster, J. D. (2007). The narcissistic self: Background, an extended agency model, and ongoing controversies. C., Sedikides & A. J. Spencer (Eds.) *The self* (pp. 115-138)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ho, E. Y., & Gwak, E. H. (2010). Anger and Anger Expression Patterns of Covert and 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fter getting Failure Feedback.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 582-599.
- Cho, S. S., & Choi, H. S. (2007). Effects of Social Exclusion/Inclusion and Causal Attribution up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unishment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131-151.
- Choi, J. S., & Yang, J. W. (2018). Social Exclusion and Facial Emotion Recognition in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18-30.
- DeWall, C. N., Pond Jr, R. S., Campbell, W. K., & Twenge, J. M. (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 200-207.
- Eo, Y. j., & Lee, Y. H. (2017). The Influence of Bully's Psychopathic Tendency on the Level of Empathy in Middle & High School: Focusing on the Change after Exclusiv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66-77.

- Eon, J. H., Kim, N. H., & Jeon, W. Y. (2016). Social Exclusion and Food Choice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79. [Abstracts]
- Gang, S. H., & Chung, N. W.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969-990.
- Han, S. J., & Kwon, S. M. (2010). Perceptual Sensitivity of Narcissists to Self-Relevant Inform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1135-1143.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ope, D. A., Burns, J. A., Hayes, S. A., Herbert, J. D., & Warner, M. D. (2010). Automatic thoughts and cognitive restructuring in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1-12.
- Hwang, S. H., & Jo, S. H. (2015). Screening Criteria of Pathological Narcissism: Identifying Cutoff Score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 275-303.
- Kim, E. H., & Seo, S. G.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ping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Host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 533-548.
- Kim, J. H. (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Cho Y. R., & Lee, M. K. (2000).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15.
- Kim, J. S. (2010).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for Social Exclusion on the Emotional Responses and Eating Behavior of College Female Students with who have High Binge Eating Tendenc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J. Y., & Jeon, W. Y. (2014).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Weight Perception.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322. [Abstracts]
- Kim, M. J., & Kim, E. J. (2018).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jin Kyofusho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Isol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4, 637-655.
- Kim, Y. Y., Lee, E. J., & Kim, B. J. (2011). The relation among narcissistic personality, depression, and psychopathy: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 97-113.
- Leary, M. R. (2010). Affiliation, acceptance, and belonging.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864-897.
- Lee, J. D., Seo, S. K., & Lee, H. J. (2007).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 Young Adults with Covert, Overt Narcissistic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463-477.
- Lee, J. W., & Jang, E. Y. (2011). Longitudinal Effects of Self-Enhancement Motive, Implicit and Explicit Narcissism on Depressive Moo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441-458.
- Lee, S.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Grandiose Fantasy i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Anger: A Moderated Mediat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McCullough, M. E., Emmons, R. A., Kilpatrick, S. D., & Mooney, C. N. (2003). Narcissists and “victims”: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perception of trans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885-893.
- Orne, M. T. (2017). On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m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s. In *Sociological Methods* (pp. 279-299). New York, NY: Routledge.
- Park, S. R., Shim, M. S., & Lee, H. J. (2005). Self 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Overt-Covert Narcissis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55-266.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C., & Levy, L.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y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y Assessment*, 21,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 Roche, M. J. (2011).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31-4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7.
- Ronningstam, E., Gunderson, J., & Lyons, M. (1995). Changes in pathological narcissis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253.
- Seo, J. W. (2017). *The Effect of Introvert-Outwardness of Applicants on the Use of Impression Management Strategy and the Evaluation of Interviews in Interview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omerville, L. H., Heatherton, T. F., & Kelley, W. M. (2006). Anterior cingulate cortex responds differentially to expectancy violation and social rejection. *Nature Neuroscience*, 9, 1007-1008.
- Tweng,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272.

- Watson, P. J., Sawrie, S. M., Greene, R. L., & Arredondo, R. (2002). Narcissism and depression: MMPI-2 evidence for the continuum hypothesis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9*, 85-109.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 Yang, J. W., & Kwon, S. M. (2016).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215-242.
- Yoo, S. R., & Kim, E.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narcissism and Social-anxiety: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Moderated by Self-compa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 243-261.
- 1차원고접수 : 2019. 10. 11.
2차원고접수 : 2020. 03. 15.
3차원고접수 : 2020. 04. 13.
4차원고접수 : 2020. 04. 20.
최종게재결정 : 2020. 05. 07.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j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Depression

Sera Lee¹⁾

Hyun-kyun Shin¹⁾

Chanki Moon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Leeds Beckett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j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ulnerability,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narcissism, and depression. Before the main experiment, five preliminary studies were conducted to make a new experimental paradigm, 'first impression effect study with video', to manipulate social rejection and non-rejection. In the main experiment, 152 participants from a university answered a questionnaire about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ocial rejection [$N=76$] and non-rejection [$N=76$]). The results showed that narcissistic vulnerability predicted depression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only in the condition of social reje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rejection experiment procedure by making up for the existing social rejection experiment paradigm, as well as for exte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depression considering the role of social rejection.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eople with narcissistic vulnerabilities are more likely to feel depressed in interpersonal situations due to unrealistic expectations that require only positive responses from others. Lastly,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pathological narcissism, including narcissistic vulnerability, can be expanded if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power of social rejections are considered in this experiment.

Key words : narcissistic vulnerability, depression, social rejection, moderating effect

부록 I: 사회적 거절 / 비거절 평가지의 예시 (거절, 비거절 순)

동영상을 통해 귀하가 본 인물을 떠올리면서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귀하의 주관적인 의견 상, 인상평가를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성격적 특성이
 다음의 각 문항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지적이다	--- --- --- --- --- --- --- ---	지적이지 않다
자신감이 있다	--- --- --- --- --- --- --- ---	자신감이 없다
믿을 만하다	--- --- --- --- --- --- --- ---	믿을만하지 않다
사교적이다	--- --- --- --- --- --- --- ---	비사교적이다
성실하다	--- --- --- --- --- --- --- ---	불성실하다
깊이 생각한다	--- --- --- --- --- --- --- ---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	--- --- --- --- --- --- --- ---	안정감이 없다

1)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말투와 목소리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비호감이다
------	---------------------------------	-------

2)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개인소개"에 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비호감이다
------	---------------------------------	-------

3)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낭독"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비호감이다
------	---------------------------------	-------

4)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비호감이다
------	---------------------------------	-------

5) 만약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와 '조별 과제'와 같은 협동과업을 하게 된다면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		
네	고민해보겠다	아니오

동영상을 통해 귀하가 본 인물을 떠올리면서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귀하의 주관적인 의견 상, 인상평가를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성격적 특성이
다음의 각 문항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위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지적이다	----- ----- ----- ----- ----- ----- ----- ----- ----- -----	지적이지 않다
자신감이 있다	----- ----- ----- ----- ----- ----- ----- ----- ----- -----	자신감이 없다
믿을 만하다	----- ----- ----- ----- ----- ----- ----- ----- ----- -----	믿을만하지 않다
사교적이다	----- ----- ----- ----- ----- ----- ----- ----- ----- -----	비사교적이다
성실하다	----- ----- ----- ----- ----- ----- ----- ----- ----- -----	불성실하다
깊이 생각한다	----- ----- ----- ----- ----- ----- ----- ----- ----- -----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	----- ----- ----- ----- ----- ----- ----- ----- ----- -----	안정감이 없다

1)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말투와 목소리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 -----	비호감이다
------	---	-------

2)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개인소개"에 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 -----	비호감이다
------	---	-------

3)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낭독"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 -----	비호감이다
------	---	-------

4)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호감이다	----- ----- ----- ----- ----- ----- ----- ----- ----- -----	비호감이다
------	---	-------

5) 만약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된 상대와 '조별 과제'와 같은 협동과업을 하게 된다면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 ----- ----- ----- ----- ----- ----- ----- ----- -----	아니오
	고민해보겠다	